

이 길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루 종일을 달렸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을 오늘도 달렸다. 나는 현재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 중이다. 손수 운전으로 대륙의 광활함을 체험하고 있다. 정말로 무지막지할 정도로 커다란 땅덩어리이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남의 땅까지 넓보았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광활한 대지, 그 곳의 고속도로를 질주한다. 어제도, 오늘도 하루 종일을 달렸다. 하여 보스턴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나의 핸들은 분주했다. 그래도 동부의 북쪽 지역은 적당히 구릉도 있고 우거진 나무 숲의 산도 보인다. 하지만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은 지역의 황량한 풍경은 정말로 지루한 길의 연속일 따름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 범 도
미술평론가 · 경원대 교수

길에서 길을 묻는다

반영하는 것이지만 아쉬운 일임에 틀림없다. 동행은 아름다운 일이다. 먼 길을 낮은 사람과 함께 가기. 그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인생살이는 낮은 사람과 만남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시절인연이 오면 친해지고 또 인연가는 헤어지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길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길, 길은 우리 인생살이를 상징한다. 오솔길이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도 있듯이. 도반(道伴)이란 단어를 생각한다. 벗과 함께 가는 길, 그것처럼 아름다운 길도 없으리라. 그

길에 피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길을 걷는다. 그 길은 익숙한 어제의 길이기도 하고 낯선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 나그네 길을 도반과 함께 하는가. 과연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도반이 있는가. 도반이라는 단어는 가람에서만 통용되는 특수용어인가. 가람이라고 하니 불교 용어가 떠오른다. 바로 협시불이라는 용어이다. 삼존불의 경우, 우리는 흔히 본존상의 옆에 있는 상을 협시불이라고 한다. 협시라는 단어는 상하의 수직구도를 일컫는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군위 위계질서가 분명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 나는 언젠가부터 협시라는 용어에 대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지니고 있었다. 하여 협시를 대신할 만한 용어 찾기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 같은 고민은 우연히 한 도반으로부터 해결되었다. 바로 반불(伴佛)이라는 용어였다. 반불은 수직이 아닌 수평의 구도를 의미한다. 상하의 위계질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평등개념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의 의미가 아닌가. 협시불이라는 용어보다 반불이라는 용어, 나는 이 말에 감동을 하고 있다.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도반과 함께 가는 길은 힘들지 않듯이.

나는 오늘도 대륙을 질주했다. 물론 가족과의 여행길이지만, 길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부처님의 일생은 바로 길,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탄생, 득도, 설법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길과 연결되어 있다. 그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길은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요구한다. 운수행각이라는 단어의 상큼함이 이 이름을 멋있게 꾸민다. 우리는 길을 간다. 혼자 혹은 여럿이.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이 뜨거운 여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때는 협시를 원하는가, 반불을 원하는가.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지난 7월 2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는 분단이후 최초로 '6·15 공동선언 실천과 조국통일 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다.

최근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열린 이번 법회는 남북의 제불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부처님 앞에 하나님을 확인하고 조국통일의 대열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실로 크다고 하겠다.

이 땅의 불교가 남북통일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화두는 전통적으로 조국의 문화와 자주를 지향해온 우리 불자들에게 시대적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 남북의 모든 불자가 통일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라영식 조불련 신도회장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 불자들은 곧잘 서산·사명대사의 순교적 구국정신을 되뇌이곤 한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조국분단의 극복을 위해 과연 얼마나 통일보살로서의 순교적 활동을 해왔던가? 부끄럽게도 분단

'통일보살'로 살자

조국의 현실에 그동안 불교계의 관심은 매우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불교가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면 먼저 이렇듯 알람하기 짝이 없었던 불교계의 통일 의지부터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각설하고, 이번 합동법회를 지켜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

남북불교도 공동성명 내용이 일본의 신사참배, 역사왜곡, 독도문제만 규탄하고 끝남으로써 마치 남북분단의 책임을 일본에게 전가하는 듯 느껴졌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은 외세규탄만으로 성취되지 않으며, 기원만으로도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통일보살이 될 것을 사후사원과 똑같이 서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원은 순교적 실천에 다름 아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우리 남북 불교도간의 만남과 교류를 더욱 자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임을 재확인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 실천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오늘 통일보살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도수염명도량 화주



이렇게 생각 한반도 평화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거나 원한 지닌 그 속에서 성내지 않노라. 흔히들 모두 원한 있어도 나의 가는 길엔 원한 없도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툼 없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라.

〈법구경 안락행품〉

제4차 6자회담이 7월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은 대북송전이라는 에너지 지원 제안으로 북미 양측 신뢰회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벌써부터 핵 문제가 해결돼 한반도에 평화 가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주변국을 비롯해 세계평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미간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해답은 이미 2003년 제3차 6자회담에서 도출된 것이 사실이다.

북미간 조율 사안은 '동시이행' '선 핵 폐기 후 안전보장'으로 귀결된다. 그런 만큼 양측이 조금만 양보하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승리할 때는 원망을 사고 패배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나니, 승패에 매이는 마음 떠나야 다툼 없어 스스로 평안해지리라'라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서로 승리하는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의 관철은 계속적인 불화의 불씨를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6차 회담이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6개국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 김원우(현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sbs의 수경사 보도는 올바른가

수경사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각 언론사에서 서로 다투어 미담으로 방송했던 사절이다. 불자들은 참 소중한 일을 하는 절이라고 생각했고 불자들에게 표상이 될 만한 절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불자들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원효 스님이 저술한 <삼십수행장>에서도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대승행(大乘行)을 닦아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늘이 찬양할 뿐 아니라 마칠내는 여래(如來)의 사자좌(獅子座)에 나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경사가 인사매를 하고 있는 절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리나라 언론이 철학 없는 냄비 언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언론은 너무나 상업적이고 심각한 아상에 매몰되어 시청률만을 의식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방송을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언론의 자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일부 불자들은 이러한 방송의 편과 왜곡 보도에 대하여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심각한 아상에 매몰되어 시청률만을 의식하여 오히려 국민에게 독이 되는 방송을 하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언론의 자성을 촉구한다.

도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의 도리가 아니다. 언론에 맹신하는 불자라면 정경으로 언론을 바르게 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불자들은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잘못된 언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고 싶다. 세상은 평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존재한다.

세상은 언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 연기에 의해 존재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으로 훈탄한 세상을 말하려는 일에 자신 몸을 던지는 화생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진정한 수행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전하며 불법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에서 승가를 바르게 지키고 승가의 위상을 청정하게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언제나 승가의 화합을 말씀하셨다.

수경사에 비구니 스님이 중생을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봉사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교도들이 위장하여 봉사자들을 보내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스님을 모함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도 침묵을 하고 있을 것인가.

불교의 발전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수경사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참다운 수행이며 이 시대 불교 발전에 대한 불교도들의 진정한 화두이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시민 폭행 의원 물러나야

김포시 윤보 시의원이 한강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설명회에서 습지 지정에 찬성하는 스님을 폭행했다고 한다. 스님을 폭행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뺏아준 시민을 폭행했다는 이유에서든 시의원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람은 한국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을 보고 흉내 내는 모양인데 정말 한국인으로서는 부끄럽다.

시의원 정도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지나 갈수 없는 문제이다.

물러나게(웃다뉴스)

11면 상식 퍼즐 정답

구	관	조	혈	
도		사	대	육
역			부	기
정	독			원
	불	공		순
	장	삼	이	사
공	군		시	금
			치	

'연대' 민명

심민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료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는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았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 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썩뚝! 썩뚝! 온구(썩뚝)기 개발!

연기와 화상에서 완전 예방된 온구(썩뚝)기 민간요법, 대체의학계의 기본이 되는 썩뚝!

한의원, 피부관리실, 경락·스포츠 마사지실, 다이어트방 및 가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오행온구(썩뚝)기
현자리를 몰라도 뜰 수 있다 (배는 따뜻, 머리는 차가게)

오행온구(썩뚝)기는 5개의 썩뚝으로 5개의 열자리에 동시에 썩뚝을 할 수 있다.

대리점 및 썩뚝체험실 모집

하. 이러한때를 따뜻하게 히므로써 생식기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여 양의 기운을 복돋운다.
 둘. 관원혈을 자극하여 율령내의 조직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정맥이 강화된다.
 셋. 인체 깊숙한 곳에 썩의 약초 성분과 열기가 침투되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각기 몸살에 효과가 있다.
 넷. 면역기능 활성에 작용하여 항체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다섯. 뜸은후 6분 경과시 백혈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환두 시간 후에는 정상인의 2배가 된다.
 여섯. 진공흡입을 통하여 항어 습진이 제거되면서 열기로 인해 노폐물과 단백질을 몰아내며 관원혈의 부종을 만든다.
 일곱. 흡수 후 이온로 차게 있던 장기들을 썩뚝의 특이한 기능으로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다.
 여덟. 외상이나 대장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시킴으로 인해 기미나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